



XU ZHEN®, *Evolution-North Wall of Mogao Cave No.172, Mma Ji Mask*, 2017. Oil on canvas. 120 × 170 cm | 47 1/4 × 66 15/16 in.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tin.

XU ZHEN®

Opening Thursday May 10, 5 - 7pm
May 10 - July 8, 2018

Perrotin Seoul is pleased to present a solo exhibition by Chinese artist Xu Zhen, featuring major works spanning the development of his flagship art brand, XU ZHEN®, since 2013.

Using both conceptual and pop strategies, Xu Zhen's practice mounts incongruous clashes between iconographies pertaining to distant cultures, civilizations and ages to question the loss of context induced by globalization. Ironically mirroring post-Mao China's journey into consumerism, Xu transforms himself into a brand with the creation of his art corporation "Madeln Company" in 2009 as a behavioral - and almost performative - study of the symmetries between ideas, art and business.

On display is his signature *Under Heaven* series, which was featured in the 2014 Armory Show in New York to serve the commercial campaign for the fair. Florae of vibrant colors are skillfully figured using

오프닝 목요일 5월 10일, 5 - 7pm
5월 10일 - 7월 8일, 2018

페로탕 서울은 중국작가 쉬젠 (Xu Zhen)의 개인전을 통해, 2013년부터 이어져 온 그의 플래그십 아트 브랜드 XU ZHEN®의 역사와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개념예술과 팝아트 전략을 골고루 사용하는 쉬젠은 동떨어진 문화, 문명, 시대에 속하는 성상등을 이용해 부조화스러운 충돌을 일으키고, 세계화로 촉발된 맥락상실 현상에 질문을 던진다. 탈-마오 시대 중국의 소비주의를 향한 여정을 풍자적으로 반영하는 그는 2009년, 예술 법인 "메이드인 컴퍼니(Madeln Company)"를 창업하여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아이디어, 아트, 비즈니스 간의 균형에 대한 거의 수행적인 행동 연구사업이다.

2014년 뉴욕 아모리쇼의 상업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보인 바 있는 "Under Heaven" 연작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유화물감으로 채운 짚주머니를 이용해 정교한 솜씨로 강렬한 색상의 꽃을 만들어낸 작품으로, 마치 생일 케익에 올려진 감미로운 아이싱을 연상시킨다. 향긋하고 섬세하며, 밝으면서도 퇴폐적이다. 해독 가능한 이미지와 이질적인 요소들이 한데 섞여 잠재의식적 모호함을 만들어 내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호화로운 축제로서의 경제 성장을



XU ZHEN®, *Under Heaven-2801PR0176*, 2017. Oil on canvas, aluminium. Ø 150 cm, Depth: 13 cm | Ø 59 1/16 in, Depth: 5 1/8 in.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tin.

cream piping bags filled with oil colors, evoking the luscious icing on a birthday cake. Fragrant and fragile, joyful and decadent, this subconscious blur of decipherable imagery and extraneous elements alludes to economic growth as a sumptuous, moveable feast – a metaphor for the globalized hedonism in China. Conversely, Xu also sees his pop-like “cake painting” as a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childhood revelries and excess, a visual referent capable of conjuring each individual’s inner experience. Considered thus, *Under Heaven* reveals the duality of a sign system at the threshold between principled art and superficial beauty; one which, as Barthes would say, “draws attention to its own arbitrariness – which does not try to palm itself off as “natural” but which, in the very moment of conveying a meaning, communicates something of its own relative, artificial status as well.”¹ This harks back to Xu’s work from the 90’s, a time of ambiguities and conceit amidst political recovery and economic boom. Here, Xu reiterates his interrogation of art – its authority, competence and limitations – vis-à-vis his consciousness of the world in the spirit of Deng Xiaoping’s apocryphal exhortation, “To become rich is glorious”.

Eternity is a series of sculptural installations that amalgamate archetypes of art history and great civilizations. The collision between cultural symbols allows Xu to subtly touch upon the various power struggles in human history, a leitmotif that continues with his more recent canvas series titled *Evolution*. Embodying the violent nature of cultural hybridization, the pairings of traditional African and Chinese motifs further problematize the loss of meaning and context induced by the precipitation of globalization in the digital era. Here we return to

시사한다. 다시 말해, 중국의 글로벌화된 향락에 대한 은유인 것이다. 이런 해석과는 다르게, 쉬전은 그의 팝적인 “케익 페인팅”을 유년기의 유희과 과잉에 대한 집단적 재현이자, 각 개인의 내적 경험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시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Under Heaven”은 정통 예술과 표면적인 아름다움 사이의 문턱에서 기호 체계의 이중성을 드러내 보이는 작품인 것이다. 바르트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테다. “자기 자신의 임의성을 주목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팔아넘기지 않고, 의미를 전달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상대적이고 인공적인 지위를 암시하는 것이다.”¹ 이는, 국가적으로 정치적 회복 과 경제적 호황의 시대이자 작가에게는 모호함과 교만의 시기였던 90년대 작업과도 맞닿아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덩샤오핑의 출처불명의 명언을 따르는 세상에 대한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쉬전은 예술의 권위, 권한, 한계에 대한 물음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문명과 예술사 속 전형들을 결합시켜 놓은 조각 설치 연작 “Eternity”는 문화적 상징의 충돌을 통해 인류사의 여러가지 크고 작은 권력투쟁을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는 최근의 캔버스 연작인 “Evolution”에서도 계속 다루어지고 있다. 문화혼종화의 폭력성을 담은 이 작품은, 아프리카와 중국의 전통 모티브를 짝지어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된 세계화로 인한 의미와 맥락의 상실 현상을 더욱 폭넓게 문제화한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임의의 “기호”로 되돌아가, 관람객이 선뜻 포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 무엇 하나 외양으로 판단할 수 없는 탈-인터넷, 탈-진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져 있는 거대한 분수령을 엿보게 된다.

“Metal Language” 연작의 기저에도 외양과 진실에 대한 유사한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거울 표면에 금속 체인을 부착하는 강렬한 방식으로 정치 만평 속 문구를 재현하는 작품의 그래픽적인 구성은 일견 과격한 정치 언어를

¹ Terry Eagleton.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8), p. 117

¹ 테리 이글턴. <문학 이론 입문> (옥스포드: Blackwell Publishing, 2008) 117쪽

the idea of an arbitrary “sign” – ever elusive to the museum or gallery visitor – which hints at the great divide we are so accustomed to in the age of post-truth and post-Internet where nothing is quite as it seems.

A similar concern with appearance and truth underlies the Metal Language series, wherein phrases from political cartoons are presented in an intensive manner using metal chains applied to a mirroring surface. The graffiti-like composition seemingly celebrates the radical political language it concerns, at the same time as it is betrayed by the extravagance of the metallic gloss. This contradiction plunges the work into a suspended state, halfway between meaningfulness and meaninglessness.

XU ZHEN®

Founded by artist Xu Zhen in 2013, XU ZHEN® is the flagship art brand of Madeln Company, which pivots on the idea of artistic production as a framework for creation, discussion and curating exhibitions. Xu Zhen has described the company as a mode of how conceptual art is usually perceived, “We all hope this thing is made, and someone is there behind it [...] [This] represents a method and not content, although we can still insert content into the methodology.”

Xu Zhen

Born in 1977, living and working in Shanghai, Xu Zhen is a leading Chinese artist and curator, and the founder of Madeln Company. He has exhibited an extensive body of work across photography, installation and video at international museums and biennales, such as: Guggenheim Museum, New York (2017); Sydney Biennial (2016); Al Riwaq Art Center, Qatar (2016); Long Museum, Shanghai (2015); Armory Show, New York (2014); Lyon Biennial (2013); Hayward Gallery, London (2012); Tate Liverpool (2007); MoMA PS1, New York (2006); Venice Biennale (2001, 2005); Mori Art Museum, Tokyo (2005); and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04), among others. In 2004, he won the prize for ‘Best Artist’ at the China Contemporary Art Award.

In 2006, Xu Zhen co-founded Art-Ba-Ba (www.art-ba-ba.com), a leading online forum for discussion and critique of contemporary art in Shanghai. In 2009, he established ‘Madeln Company’, a contemporary art creation corporate, focused on the production of creativity, and devoted to the research of contemporary culture’s infinite possibilities. In 2013, Madeln Company launched XU ZHEN®. In 2014, Madeln Company established Madeln Gallery and in November 2016 launched the first “Xu Zhen Store” in Shanghai.

[More information about the artist >>>](#)

찬양하는 듯 하지만, 금속 광택의 화려함은 이러한 첫 인상에 배치된다. 이러한 모순은 작품을 의미 있음과 의미 없음의 중간 지점인 유예된 상태에 놓이게 한다.

XU ZHEN®

2013년 쉬젠이 창업한 메이드인 컴퍼니의 주력 아트 브랜드로, 창작, 소통, 기획을 위한 체계로서의 예술적 생산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삼는다. 쉬젠은 이 회사를 개념 예술이 주로 받아들여지는 방식에 대한 재배열로서 묘사 한 바 있다. “우리는 모두 이 물체가 만들어져 있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었기를 바란다. (...) 방법론 안으로 내용을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내용이 아닌 방법의 문제이다.”²

쉬젠 (Xu Zhen)

1977년 출생으로,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쉬젠은 중국의 주요한 아티스트이자 큐레이터, Madeln Company의 창립자다. 뉴욕 구겐하임 (2017), 시드니 비엔날레 (2016), 카타르 알 리와 아트 센터 (2016), 상하이 롱 뮤지엄 (2015), 뉴욕 아머리 쇼 (2014), 리옹비엔날레 (2013),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 (2012), 테이트 리버풀 (2007), 뉴욕 모마 PS1 (2006), 베니스 비엔날레 (2001, 2005), 도쿄 모리 미술관 (2005), 뉴욕 현대미술관 (2004) 등 세계적인 미술관과 비엔날레에서 사진, 설치 그리고 비디오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2004년 중국현대예술상 최우수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다.

2006년, 쉬젠은 상하이 현대예술에 대한 논의와 비평을 위한 주요 온라인 포럼 아트바바(Art-Ba-Ba, www.art-ba-ba.com)를 공동창업했다. 2009년, 창의력 생산 및 동시대 문화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연구하는 현대예술 창작 법인 메이드인 컴퍼니(Madeln Company)를 설립했다. 2014년, 메이드인 컴퍼니는 메이드인 갤러리 (Madeln Gallery)를 설립했고, 2016년 11월, 상하이에 첫 “쉬젠 스토어”를 열었다.

[작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



XU ZHEN®

This must be heaven, because you sure look like an angel..., 2016
Mirror polished stainless steel, metal chains, 220 x 140 cm | 86 5/8 x 55 1/8 in
Courtesy the Artist and Perrotin

² Xu Zhen, Interview with Li Zhenhua: “Harmony and Resonance from the 90’s” from *Xu Zhen* (Berlin: DISTANZ, 2014) and Interview with Andrew Maerke: “The Path to Appearance is Always...” from *Art-It* (Tokyo, July 2010)

² 쉬젠, 리젠화와의 인터뷰: “90년대의 조화와 울림” Xu Zhen (베를린: DISTANZ, 2014년), 앤드류 맬크와의 인터뷰: “출현/등장으로의 길은 항상...” Art-It (동경, 2010년 6월)에서 발췌